



numbers
vol. 240

한국인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분투
한국 남성의 일·가정 양립 추구, 크게 증가!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계층 인식
- ② 2023 장애인 현황

2024. 5. 21.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 남성의 일·가정 양립 추구, 크게 증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다고 지적했으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다수의 가사일을 여성이 감당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문화적으로 불평등한 구조 문제가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들어 초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자녀 양육 역할의 부담을 꼽아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워라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는 젊은 아빠들의 일·가정 양립 추구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결혼과 출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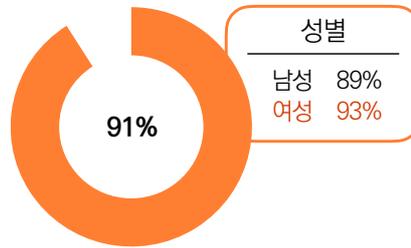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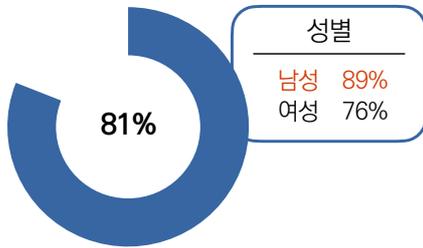
여성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 25~49세 결혼 의향 없는 미혼 국민에게 결혼하면 우려되는 몇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에 동의한 비율은 81%, '가사,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는 91%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미혼 남녀가 '경제적 요인'과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성별로는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를 꼽은 비율이,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결혼 의향 없는 사유에 대한 동의율 (결혼 의향 없는 25~49세 미혼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 준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2024.05.02.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 모바일 조사, 2024.03.29.~04.03.)
*4점 척도

02

[일과 가정 양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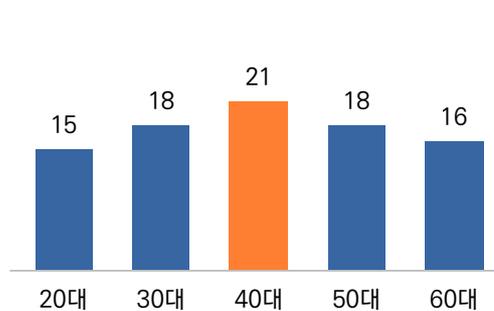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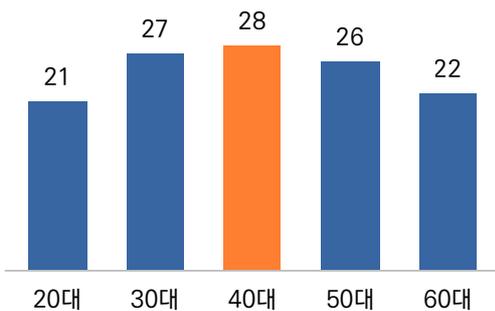
40대 연령층, 워라밸 수준 가장 낮아!

- 이번에는 일과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동의율을 살펴보았다.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에 대해 40대의 동의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역시 40대에서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40대의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흔들리고 있었다.

[그림] 연령별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인식 (일반 국민,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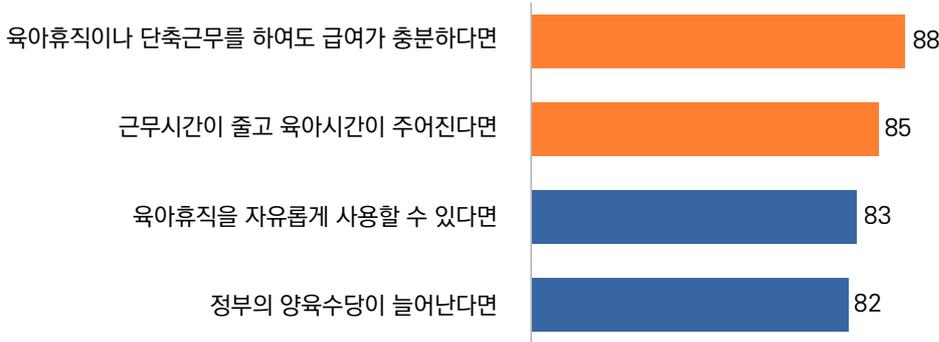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 가족실태조사', 2024.04.17. (전국 1만 2천 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 면접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06.01.~07.31.)

*5점 척도

출산율 높이기 위한 조건, '육아 시간 확보'와 '경제력'!

- 출산 적령기의 국민에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이 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85%,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83% 등의 순이었다. 종합해 보면 생활을 위한 '경제력'과 '육아를 위한 시간'이 갖추어졌을 때 출산 의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조건별 출산 의향 증가 '그렇다' 응답률 (25~49세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2024.05.02.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 모바일 조사, 2024.03.29.~04.03.)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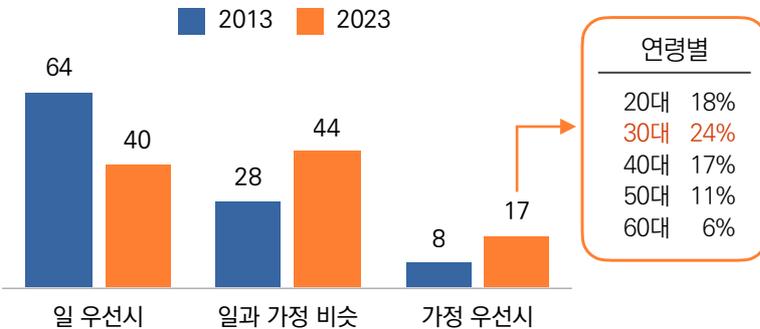
03

[아빠의 일과 가정 양립]

한국 남성의 일·가정 양립 추구, 크게 증가

- 한국 남성들은 일과 가정생활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 2013년과 2023년의 10년 사이 남성들의 일과 가정생활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 우선시' 응답이 2013년 64%에서 2023년 40%로 10년 사이 크게 줄었고, '가정 우선시' 응답은 8%에서 17%로 크게 증가하여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가정 우선시'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가 24%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남성의 일과 가정생활에 대한 우선순위 변화* (20~60대 남성, %)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분투하는 30대 요즘아빠', 2024.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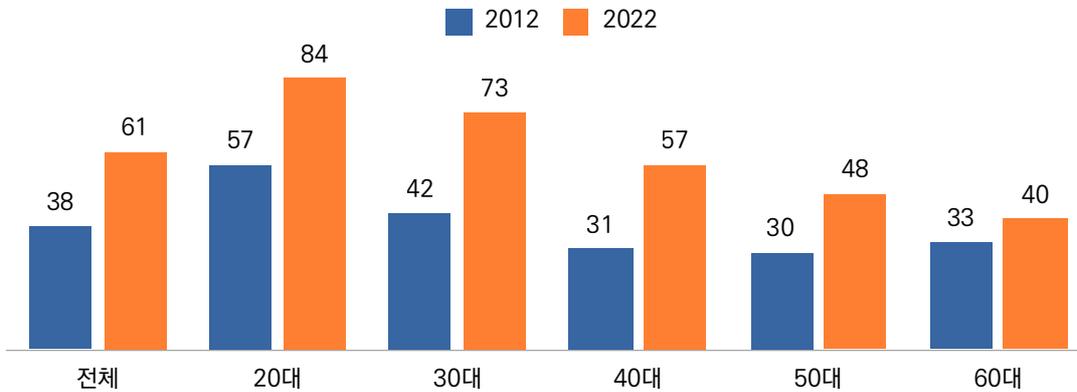
※원출처 : 통계청 (2013년, 2023년)

*5점 척도

‘가사 분담은 부부가 공평하게’ 인식, 젊은 남성일수록 높아!

- ‘부부가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을 남성에게 물었다. 10년 전 조사 대비 2022년 ‘부부 공평 분담’ 응답률이 크게 상승했으며(38%→61%),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대 대부분(84%)은 가사 노동에 대한 남녀의 역할 동등 입장이 강해 기성세대와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그림] 연령별 가사 분담,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 비율* (20~60대 남성, %)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분투하는 30대 요즘아빠’, 2024.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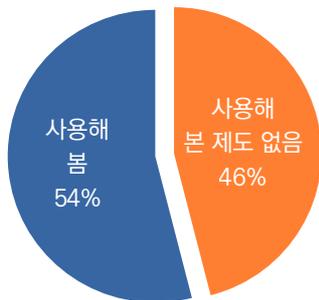
※원출처 : 통계청(2012년, 2022년)

*5점 척도 보기(남편이 모두 책임, 남편이 주로 책임, 부부가 공평하게, 아내가 주로 책임, 아내가 모두 책임) 중 ‘부부가 공평하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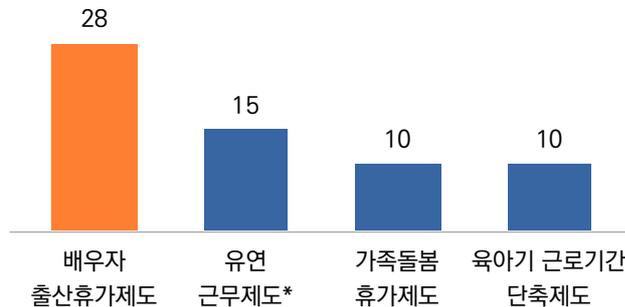
일하는 아빠 절반 가까이,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해 본 적 없어!

- 이번에는 9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인 남성에게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제도(규제, 지원금, 서비스 등)를 뜻하는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사용 경험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인 46%는 ‘사용해 본 제도가 없다’고 응답했고, 1개라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54%)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등의 순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경험
(9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직장인 남성)



[그림] 사용해 본 일·가정 양립제도
(9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직장인 남성, 중복응답, %)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2022.01. (9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배우자가 있는 일하는 남성 1,113명, 온라인 조사, 2021.11.22.~11.24.)

*시차출퇴근/재택근무/원격근무제

Note) 일·가정 양립제도 :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제도(규제, 지원금, 서비스 등)를 말하며, 2015년 말 기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총 37 개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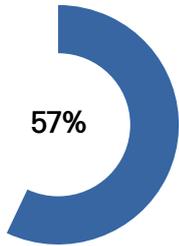
[개신교인의 가사 돌봄과 신앙]

3040 기혼 교인 3명 중 1명, '가사/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

- 가사 노동, 육아는 3040 기혼 크리스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3040 기혼 크리스천의 절반 이상인 57%가 '나는 가사 노동,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고 응답했고, 이들 가운데 34%가 '가사/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에 동의했다.

[그림] 가사 노동,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인식 (3040 기혼 개신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나는 가사 노동,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



[그림] 가사 노동, 육아 스트레스의 신앙 영향 인식 (가사-육아로 지친 3040 기혼 개신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가사/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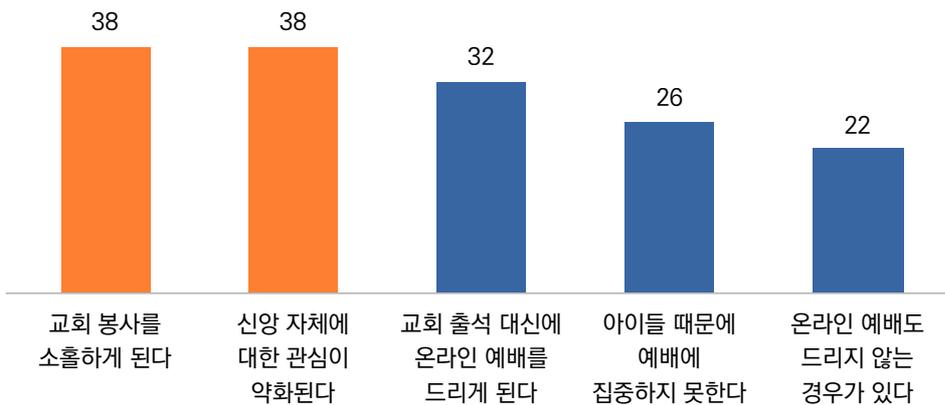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교육원, '3040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 (전국 만30~4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2023.09.08.~09.12.)

*4점 척도

가사, 육아로 인한 신앙 악영향, '교회 봉사 소홀', '신앙 관심 약화!'

- 앞서 가사 노동, 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데 동의한 자들에게 신앙에 있어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은 결과, '교회 봉사 소홀'(38%),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 약화'(38%)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교회 출석 대신 온라인 예배 드림' 32%,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 못 함' 26% 순으로 다양한 부정적 영향들이 고루 응답됐다.

[그림] 가사 노동, 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사 및 육아로 인해 신앙의 영향을 받는 자,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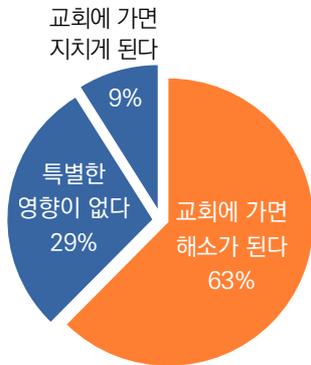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교육원, '3040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 (전국 만30~4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2023.09.08.~09.12.)

교회 가면 ‘사회·가정 생활 스트레스 해소된다’, 63%!

- 사회와 가정생활의 스트레스가 있는 크리스천이 교회에 가면 스트레스 해소가 될까? 해당 스트레스가 있는 응답자에게 물어본 결과 ‘교회에 가면 해소가 된다’ 63%로 3명 중 2명 가까이는 교회 생활이 일상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회·가정생활의 스트레스와 교회 영향 관계* (해당 스트레스 있는 3040 기혼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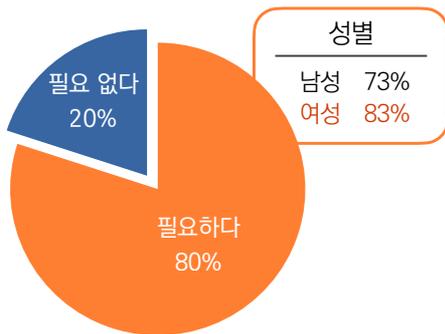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교육원, ‘3040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 (전국 만30~4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2023.09.08.~09.12.)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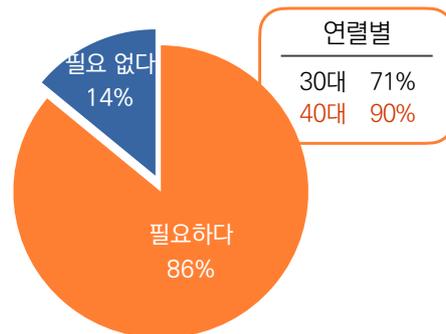
3040 기혼 크리스천 대부분, ‘부부 및 육아 모임 필요해’!

- 교회 내 부부 및 육아 모임이 필요한지에 관해 3040세대 기혼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그 결과, 대부분(8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여성(83%)이 남성(73%)보다 필요성 인식이 더 높았다.
- 이번에는 3040세대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교회내 탁아 역할 부서 필요성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탁아 역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압도적(86%)이었다.

[그림] 교회 내 ‘부부 및 육아 모임’ 필요성 인식* (3040 기혼 교회 출석자)



[그림] 교회 내 ‘탁아 역할 부서’ 필요성 인식* (3040 유아~고등 자녀 있는 교회 출석자)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4점 척도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작년 8월,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은 다큐멘터리의 캡처화면이 큰 화제가 됐다. 해당 인터뷰 당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7명대를 찍었다. 2005년 1.08명의 낮은 출산률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2007년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급기야 2023년 4분기 0.65명으로 0.7명대도 깨진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요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22년 46%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가임기에 해당하는 20~4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이다(통계청,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 정부가 제정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가사 노동과 육아는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평등 인식도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경력단절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이 결혼 의향이 없는 사유로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93%가 동의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의 허리인 3040세대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040 기혼 개신교인의 57%가 ‘가사 노동과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에 동의했으며, 가사 육아로 지친 교인의 34%가 ‘가사, 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다. 가사,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 약화’와 ‘교회 활동 저하’로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 신앙 약화가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위험이 있다.

희망적인 결과가 있다면, 젊은 아빠들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인식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과, 가사 육아로 지친 교인에게 교회가 큰 위로가 된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의 일과 가정 생활에 대한 우선순위가 10년 전 조사(2013)에서는 ‘일 우선시’가 64%로 가장 높았지만 2023년 조사에서는 ‘일과 가정 비슷’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도 젊은 남성일수록 높았다. 또한 사회, 가정 생활의 스트레스가 있는 3040 기혼 크리스천의 경우 63%가 ‘교회에 가면 해소가 된다’에 동의해 이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시사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는 자녀 양육 중인 부모들이 서로 위로하고 공감할 모임과 프로그램,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3040 기혼자의 80%가 ‘부부 및 육아 모임’의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서울 영락교회는 최근 기존 교회 공간을 리모델링해 3040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영락꿈터’라는 키즈 플레이존을 마련했으며, 서울 한성교회는 어린이가 예배와 놀이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의자를 치우면 롤러장 등 놀이터로 사용하고 의자를 깔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합 다목적 공간을 만들었다. 다음세대를 향한 여러 교회들의 노력이 고무적이다.

교회 밖으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돌봄 문제를 모색해야 한다. 당진 동일교회의 경우 30여년 전 돌봄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한 장의 벽보가 해당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어 현재 2자녀 이상 가정이 3000세대인 큰 교회로 성장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일과 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그리고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교회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계층 인식
2. 2023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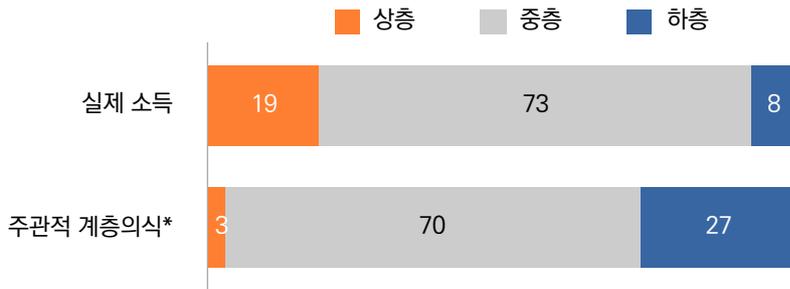


[한국인의 계층 인식]

한국인, 실제보다 자신의 계층을 더 낮게 보는 경향 강해

- 최근 발표된 KDI의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를 통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을 실제 소득(10분위)별로 파악하여 계층 인식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다. 우선 소득 기준에 따른 객관적 계층의 분포는 '상층' 19%, '중층' 73%, '하층' 8%인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상층' 3%, '중층' 70%, '하층' 27%의 분포를 나타내, 서로 상이함을 보였다.

[그림] 계층 인식 구성비 (일반 국민, %)



-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층 소득자(실제소득 구성비 73%)가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51%로 나타났으며 상층 소득자(실제소득 구성비 19%) 역시 본인이 상(류)층이라고 인식하는 1%로 매우 낮았다. 대체로 한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수준에 비해 자신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표] 소득기준에 따른 주관적 계층 인식 구성비 (일반 국민, %)

		주관적 계층의식			
		상	중	하	계
실 제 소 득	상(80% 이상)	1	16	2	19
	중(20~80%)	2	51	20	73
	하(0~20%)	0	3	5	8
계		3	70	2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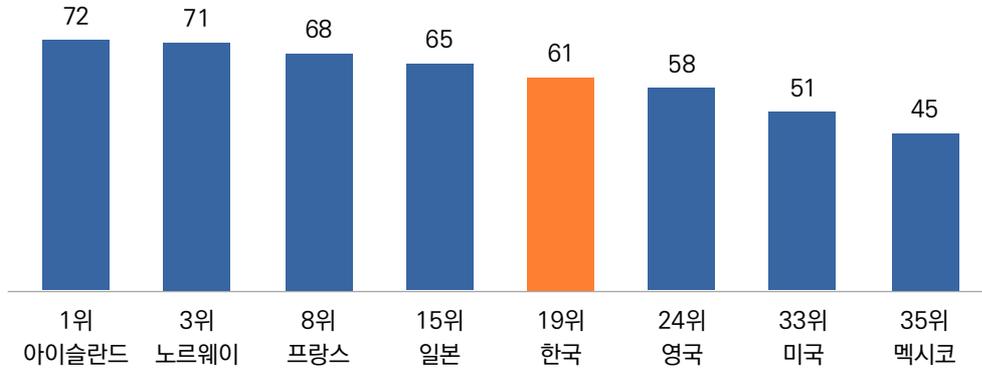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 2024.01.

*소득, 직업, 학력, 재산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함

중산층 비중, OECD 35개국 중 한국 19위로 중위권!

- 이번에는 실제 국제 기준의 중산층 비중을 OECD 주요국 기준으로 살펴본다. 아이슬란드가 72%로 1위였고, 일본은 15위(65%)로 한국(19위, 61%)보다 약간 높았다. 그 외 미국은 중산층 비중이 51%로 미국인의 절반 정도였고, 꼴찌는 멕시코(35위, 45%)가 차지했다. 한국은 35개국 중 19위로 중위권 수준이었다.

[그림] OECD 주요 국가별 중산층* 비중 비교 (국제 기준,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 2024.01.

*중산층(중간소득계층)은 국가별로 중위소득의 75%~200%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 인구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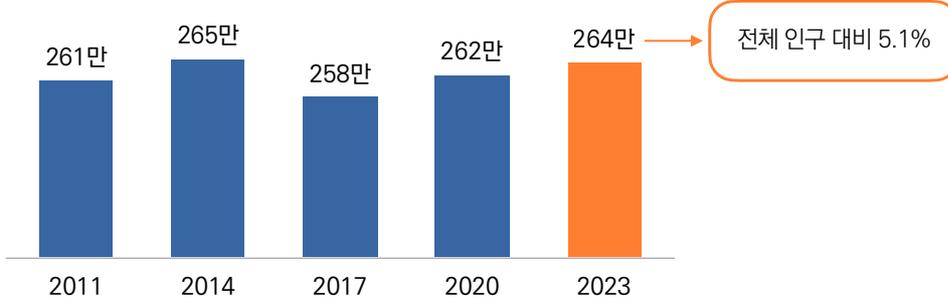


[2023 장애인 현황]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명, 전체 인구의 5.1%

-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될까? 2023년 등록 재가 장애인 기준으로 2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래로 전체 장애인 수는 소폭의 등락은 있으나 260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그림] 전체 장애인 수 (등록 재가 장애인 기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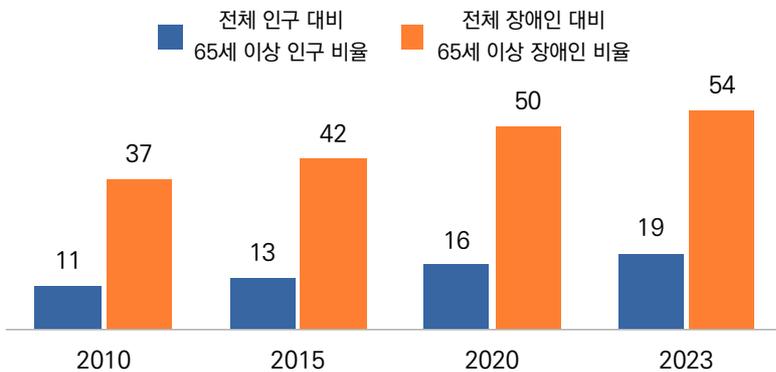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2024.04.19.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 54%로 지속적 증가세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0년에는 11%, 2023년 19%였다. 그렇다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10년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37%였는데 2015년 42%, 지난 2023년에는 54%까지 급증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고령층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수 있는데, 고령 장애인 비율의 증가 추세 역시 고령 인구 비율 증가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노인 인구 vs 노인 장애인' 비율 추이 (등록 재가 장애인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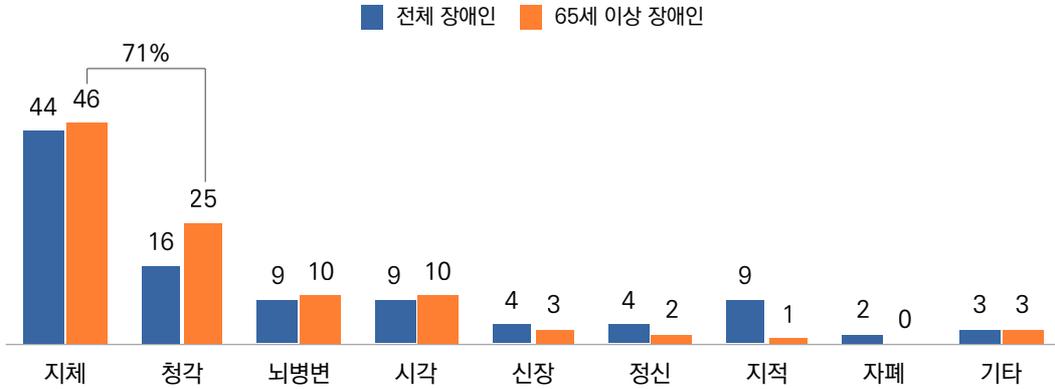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2024.04.19.

노인 장애 유형의 71%가 ‘지체 장애’와 ‘청각 장애’!

- 전체 등록 재가 장애인을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장애’가 44%로 가장 많고, 이어 ‘청각’ 16%, ‘뇌병변’ 9%, ‘시각’ 9% 등의 순이었다. 65세 이상의 경우도 지체, 청각, 뇌병변 순으로 동일했는데, 다만 전체 대비 청각 장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노화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장애 유형별 비율 : 전체 vs 노인 (2023, 등록 재가 장애인 기준, %)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2024.04.1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122호\(2024년 5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우리 사회 분야별 안전 인식, 가족의 개념에 대한 인식

사회 일반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넘었다...정부 "수급 부족 탓"](#)

연합뉴스_2024.5.14.

[할머니 돌보는 11살...나홀로 고군분투 '영 케어러' 30만명](#)

중앙일보_2024.5.18.

[서울대 연구원 "남북통합지수 4년 연속 하락...238→179점"](#)

연합뉴스_2024.5.18.

["1~3세 자녀 둔 30~40대, 여가시간 최빈곤층"](#)

뉴시스_2024.5.17.

[대세로 떠오른 '숯폼'... MZ 넘어 알파세대까지 잡았다](#)

국민일보_2024.5.14.

[효심만론 감당하기 어려운 '간병 돌봄' '간병 서비스 앱'으로 숨통 트일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5.16.

[스포츠 고관여층 63%가 여성인데...팬 진입 막는 '얼빠' 편견](#)

한겨레_2024.5.17.

[국민 절반 "정치성향 다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어"](#)

한겨레_2024.5.16.

[국민 총 진료비 120조원 넘어...중증 질환 건보 보장률은 하락](#)

한겨레_2024.5.17.

[1분기 청약당첨 10명중 8명은 40대 이하..."학세권 인기"](#)

연합뉴스_2024.5.20.

경제 · 기업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원으로 5년새 2배...작년 수익률 5.26%](#)

연합뉴스_2024.5.16.

[국가기술자격 응시하는 근로자 늘어...'인간공학기사' 관심 ↑](#)

연합뉴스_2024.5.16.

[대기업 10곳 중 3곳만 60세 이상 고용...54% "인사 적체 있다"](#)

연합뉴스_2024.5.19.

['매출 100대' 중소기업 88%·대기업 50% "韓기업과 협력하고파"](#)

연합뉴스_2024.5.2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지식 풍부한 인턴 군대 거느린 격”...AI 잘 쓰는 자 ‘일 근육’ 달랐다](#)

조선일보_2024.5.18.

["아직도 안쓰나요"...10개 중 7개 기업, 이것 못 하면 안뽑는다](#)

중앙일보_2024.5.15.

["막말·갑질보다 더 싫어" Z세대 직장인이 뽑은 최악의 선배는](#)

국민일보_2024.5.10.

[한국 기업부채 눈덩이 2700조 넘었다...세계 1위 국가는 중국](#)

매일경제_2024.5.20.

국제 · 환경

[초고령 사회의 그늘...日 "65세 이상 고독사 연간 7만명 육박"](#)

중앙일보_2024.5.14.

건강

["남 76세·여 80세...지구촌 기대수명 2050년까지 5년 연장"](#)

연합뉴스_2024.5.17.

[우리는 왜 과식할까 ...쾌락과 과식에 관한 흥미로운 심리 유형](#)

동아일보_2024.5.17.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대 환자, 5년새 28% 늘어...전체 746만 명](#)

동아일보_2024.5.17.

["직장생활에 지장 줄까봐..." 우울해도 참는 사람들](#)

헬스조선_2024.5.18.

기독교 · 종교

[몰랐던 교우끼리 관심사로 뭉친다, 교제 이어 전도까지 뜨거워졌다... 소모임 세포분열](#)

더미션(국민일보)_2024.5.18.

[2050년 무슬림 28억 예상 "기독교와 격차 줄어들 것"](#)

더미션(국민일보)_2024.5.19.

[교회 잔치에 이웃 작은 교회 목사를 순서자로... 왜](#)

더미션(국민일보)_2024.5.20.

[농어촌의 냉혹한 현실...교회 '흔들'](#)

한국기독교공보_2024.5.1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기획기사 : [22대 총선 연구 시리즈], 동아시아연구원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중간평가: 무엇을 평가했나?](#) _2024.5.8.

[유권자의 지역구 의원 평가와 지역구 투표선택](#) _2024.5.8.

[22대 총선 양대 정당 투표자의 특성 및 투표와 기권의 동기](#) _2024.5.8.

[이탈인가 향의인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투표 결정 요인](#) _2024.5.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들의 대표 정치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_2024.5.13.

[주요 정당의 공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쳤을까?](#) _2024.5.13.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_2024.5.13.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분할투표 양상](#) _2024.5.13.

[제22대 총선에 나타난 20대 유권자의 선택에서의 성차](#) _2024.5.14.

[2024년 총선에서의 자산 투표: 수도권 유권자를 중심으로](#) _2024.5.14.

[사전투표, 당일 투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_2024.5.14.

[양극화 시대 상층적 유권자의 선택: 정권견제론 VS. 정권안정론](#) _2024.5.14.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